

研究論文

<三韓拾遺>와 <西遊記>의 친연성과 변별성

서 신 혜*

I. 시작하며	III. <三韓拾遺>와 <西遊記>의 변별성
II. <三韓拾遺>와 <西遊記>의 친연성	IV. <삼한습유> 다시보기 마무리를 겸하여

I. 시작하며

국문학과 중국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문학 연구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초기에는 중국문학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학에 끼친 영향을 밝히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70년대 후반에는 우리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우리 문학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는 연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둘 모두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가 나머지 한쪽의 영향을 지나치게 무시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성을 거쳐 국문학과 중국문학, 나아가 세계문화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접근할 것인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겠으나 우선은 외국문학의 영향을 철저히 규명하면서도, 작품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것이 어떻게 強調, 改變, 削除되었으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최선인 듯하다.

<서유기>와 <삼한습유> 각각에 대해서는 그 명성만큼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개별 작품론뿐만 아니라 <서유기>와 우리나라 고소설 작품의 영향관계를 말한 논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담교수, 국문학 전공.

의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삼한습유>에 국한하면, 이상익이 <서유기>와 <삼한습유>의 유사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조혜란도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들 작품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했다.¹⁾ 그러나 설명이 소략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하는 것에 그쳐 아쉬움이 있다. 장효현은 <삼한습유>와 <서유기>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²⁾ 아직 이렇다 할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문학과 중국문학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를 남긴 정규복은 “<향량전>의 천병과 마군과의 대전장면의 來源은 중국의 신마소설뿐 아니라 가까이는 한국의 옥루몽, 군담류 소설 등 複合體에다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면서 <서유기>와 한국 고소설의 비교연구 대상에서 <삼한습유>를 제외하였다.³⁾ 그러나 <삼한습유>를 눈여겨 본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소설 특히 권 2의 天魔전쟁담은 神魔小說의 영향이 짙게 감지되는 부분이다.⁴⁾ 권 2가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이나 <삼한습유>⁵⁾가 여러 문헌을 받아들여 작품화한 특성⁶⁾을 종합해서 볼 때 <삼한습유>와 신마소설 <서유기>⁷⁾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반드시 이루

- 1) 이상익, 『韓中소설의 비교문화적 연구』(삼영사, 1983), 158~163쪽,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1994), 102~114쪽
- 2)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전문학연구』, 20집(한국고전문학회, 2001), 388쪽.
- 3) 정규복, 『한국문학과 중국문학』(국학자료원, 2001), 233~234쪽.
- 4) 이상익도 중국의 神魔小說에서 封神演義나 平妖傳 보다는 실질적으로 西遊記가 우리에게 가까이 읽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복의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이상익, 앞의 책, 158쪽).
- 5) <삼한습유>의 이본 중 가장 선본은 장서각 고서실본이지만 이것은 권 1만 남아 있다.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권(아세아문화사 영인)에 실린 서울대 도서관본이다. 이승수·서신혜(역주), 『삼한습유』(박이정, 2003)에서는 서울대 도서관본을 기준으로 각 이본들을 대조 교감하고 이것에 고서실본의 장점을 반영하여 놓았다. 여기에서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서울대 도서관본을 기준으로 작품의 쪽수를 표시하되, 앞의 책에서 제시한 교감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 6) <삼한습유>는 수많은 문헌과 작품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것의 교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문헌 속에 <서유기>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삼한습유>의 문헌수용과 그 변용 양상에 관해서는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한습유』(박이정, 2004a)가 자세하다.
- 7) <서유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만들어진 적층문학이다. 인기도 있었던 터라 다양한 사람들이 정리한 여러 종류의 판본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吳承憚이 정리한 100회본 <서유기>(中華書局, 1993)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어저야 한다.

II. <三韓拾遺>와 <西遊記>의 친연성

두 작품의 영향 관계를 논할 때, 이들 간에 발견되는 인물이나 삽화, 구절 등의 동일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깊고 타당하게 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이는 내적 지향, 문체의식의 면에서 공통분모가 나타나야 한다. 필자는 이 점에 충실하였다. 더불어 인물이나 삽화 등에 보이는 세부기술상의 직접적 영향관계도 모아서 읽는 이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했다.

1. 三敎同源 사상 그 너머: 儒佛道와 魔의 형상화, 그 독립성과 혼합성

일찍이 魯迅은 神魔小說을 정의하면서 “종래 三敎의 다툼은 모두 해결을 못 본 채 상호간에 수용되어 同源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위 義利·邪正·善惡·是非·眞妄 등의 諸端을 모두 혼합하고 이를 또 분석하여 二元으로 통합시켰으니 비록 전문적인 명칭은 없었지만 神魔라고 부른다면 대개 개괄시킬 수가 있을 것”⁸⁾이라 하였다. 또 齊裕焜은 “신마소설이란 명칭시대 儒釋道 三敎同源 사상의 영향 아래 생산되어 神魔怪異한 것으로 그 체재를 삼는 白話回章소설을 말한다”⁹⁾고 정의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三敎의 融合이나 諸端의 혼합은 신마소설을 이루는 기본적인 면서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보면 <서유기>와 <삼한습유>의 특징이 잘 연결된다

우선 유불도에 대한 형상화 태도를 보자. <삼한습유>나 <서유기> 두 작품 모두에 儒佛道가 나오며, 이들은 각기 한 자리에 모여 회기도 하고 논쟁도 벌이며 함께 전쟁을 돕기도 한다. 어느 한 편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다른 편에 명령을 전달하지 않고 어느 한 편의 말이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지지도 않는다. 이들은 각기 고유 영역과 고유한 힘이 있다. 각기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개체

8) 魯迅(著)/정범진(역), 『중국소설사략』(학연사, 1987), 172쪽.

9) 齊裕焜, 『明代小說史』(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7), 188 쪽

에게서 나온 요괴들은 그 주인만이 다루고 잡을 수 있다. 다른 인물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을 어느 인물은 한마디 호통으로 제압하여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上帝 앞에 모두 모여 상제는 道佛 등의 인물들을 깎듯이 존중한다. 이를 통해 각 세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모두가 공존한다. 작품별로 보자.

<삼한습유>는 권 1과 3의 경우 烈이나 忠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권2는 온갖 도술을 부리는 내용이 주이다. 그러나 권 1에서부터 3까지 각각의 부분에서 유불도 등 諸敎가 융합되어 나타난다.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烈과 忠의 문제이니 儒이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죽은 향량을 살려내려 온갖 신들이 모여 의논하는 것은 道의 모습이다. 여래가 없었다면 魔를 이기지 못하여 향량의 혼인도 없었을 것이다. 佛이다 향량의 환생재가를 허락할 것인가를 두고 地府와 天上에서 유불도 여러 인물들은 물론 陽·墨 등 諸家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각기 의견을 존중해서 들으며 각 분야에서의 의견을 나누었다(권 1, 63~73쪽). <삼한습유>는 공존의 장소이다.

儒佛道 등 諸敎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 있다. 때문에 도움을 청할 때에 각기 다른 공간으로 講兵문서를 보낸다. 이들은 出戰해도 서로 다른 방식의 도술로 싸운다. 예컨대 火德眞君은 火攻을 펼치며(권 2, 144쪽), 祝融夫人은 붉은 비단 동아줄을 사용하고(권 2, 152쪽), 元始天尊은 玉樞寶經을 외는 것으로 마병을 친다(권 2, 180쪽). 이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다르다 예를 들어 天台神姑의 靑龍이 세상에서 물의를 일으키자, 天台神姑가 나타나 그것의 목숨을 구해 달라 청하고 자신이 직접 靑龍의 털을 수거해 가는 내용(권 3, 225쪽)이 나타나기도 한다. 요컨대 <삼한습유>에서 諸敎가 서로 혼합되어 있기도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서유기>는 더 말할 것조차 없다 삼장법사는 부모에 대한 효를 근본으로 끝까지 원수를 갚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겼다. 손오공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죽다 살아났을 때조차 사부님을 찾으며 늘 그에게 충성한다(41회).¹⁰⁾ 효와 충은 유교의 대표적인 덕목이다. 삼장법사가 그 모든

10) <서유기>는 100회로 이루어진 만큼 각 회만 정확히 밝히면 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지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원문을 제시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원문을 제시하겠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불경을 얻어 중국에서 說法하는 일이다. 불교이다. 삼장법사의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손오공 등의 도술과 술법과 수완이 없었으면 삼장법사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며 <서유기> 자체도 나올 수 없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도교와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서유기>는 유불도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작품이다. 실제로 손오공은 車遲國의 왕에게 “부디 유불도를 한결같이 해서 스님도 공경하고 도사도 공경하며 인재도 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 나라는 길이 견고할 것입니다”¹¹⁾라 하기도 하였다.

유불선 등이 혼합되어 있으면서도 이들 각각은 독립적이라는 점은 <삼한습유>와 같다. 儒는 神이랄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佛·道의 각 인물들은 독립적 공간에 살면서 서로 다른 일을 맡아 하고 서로 다른 보물을 지녀 그것으로 힘을 유지한다. 때문에 각 인물의 수하에서 나온 微物들은 오직 그 인물만이 해결하고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太乙救苦天尊의 머리 아홉 달린 獅子가, 종이 조는 틈에 도망하여 세상에서 요괴노릇을 했다. 이때 그의 본색을 밝히며 호통 쳐서 털미를 잡아 돌아가는 일은 오직 태을구고천존만이 할 수 있다(90회). 이런 예는 <서유기>에서 수없이 나온다.

이와 연결하여 더 천착해야 할 것은 魔에 대한 태도 및 그 형상에 관해서이다. <서유기>나 <삼한습유>에서는 유불도가 잘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요, 魔도 유불도와 똑같이 대했다.¹²⁾ 종래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魔는 絕對惡이며 斥邪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서유기>나 <삼한습유>에서는 유불도와 동등하게 魔 역시 一家를 형성하고 있으며 작가는 이에 대해 차별 없는 태도를 취하였다. 전자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후자에 대해 비판이나 배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인정하며 소개하기도 하였다. 儒佛道魔의 장단점을 동시에 露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요컨대 이들 두 작품은 三教同源의 혼합적 분위기를 넘어 ‘魔’까지 포함할 만큼 그 인식이 자유로우며 유연하다.

11) <서유기> 第四十七回 聖僧夜阻通天水 金木垂慈救小童 중에서 “望你把三教歸一，也敬僧，也敬道，也養育人才，我保你江山永固”

12) <서유기>의 神魔에 관해서는 몇몇 논의가 있다. 필자와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참고할 만하다. 윤태순, 「서유기 神魔考」, 『중국학연구』, 8·9합집(숙명여대 중국연구소, 1994), 123~139쪽, 최한용, 「서유기의 神佛과 妖魔關係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1996), 1~113쪽

2. 거침없는 폭로의 묘미: 通念的 가치의 顛倒와 가치 평등

앞 장의 논의를 이어 인식면에 좀 더 천착해 보자. <삼한습유>나 <서유가>에 三敎同源 사상이 드러나기는 하나 이들이 모두 절대적으로 가치 있거나 또는 가치 없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들 대상에 대한 일반의 평가 태도가 반복되지도 않는다.

<삼한습유>에서 향량의 환생재가에 대해 의논할 때는 공자의 의견을 매우 존중 하면서 儒를 높였다. 그러나 魔軍의 대대적인 공격이 펼쳐질 때 儒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오늘 싸우는 이들이 모두 공자를 외우고 본받으며, 선비의 관을 쓰고 그 옷을 입었지만 다들 바른 힘으로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¹³⁾라며 도교의 인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여산노구의 편지도 그렇고, 女色을 이용한 마모의 전략에 대해 말하면서 “유는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능하여 허물을 적게 할 수는 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慾界에서 초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심·도심의 말을 만들었으니 그 요지는 絶嗜禁慾, 즉 즐기는 것을 끊고 욕심을 금한다는 몇 마디로 정리됩니다. 또 한결같이 중용의 도를 내세우기 때문에, 때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오차가 있으면 함께 방향을 잃은 것으로 돌려버리는 까닭에 오늘 천라지망에 걸린 자는 모두 유입니다”¹⁴⁾라고 했던 이천왕의 말 등은 모두 儒에 대한 조롱이다.

각종 회의나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늘 대상노군이나 장자, 열어구 등 도가의 인물이 威儀 당당하게 나타나며 이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다. 마군 측에 새로운 전략이 서면 곧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마왕 스스로가 “老聃·魏伯陽·墨翟·禽滑釐 등 도가의 무리는 혼인의 일에 대해 서는, 얼음을 모르는 여름 벌레와 같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소”¹⁵⁾라며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지가 비인간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대하여 人情을 인정하고 혼인을 이루는 것이라 할 때,¹⁶⁾ 혼인의 일에 대한 무능은 다른 전반적인

13) <삼한습유> 권 2: 是故, 驪山老嫗令海門大仙折簡要老君 曰 “且今之戰者 雖皆誦法孔子 皆冠儒服儒, 而皆無正力以維持”

14) <삼한습유> 권 2: 李天王曰: “儒能自治, 止於寡過, 而不能使人超脫慾界, 故作爲人心道心之說, 其極歸於絶嗜禁慾四字, 一於中庸之道, 有過不及之差, 則同歸於迷方 故今之罹此者 皆儒也”

15) <삼한습유> 권 2: 魔王曰: “且婚姻之事猶夏蟲之於冰也, 如老聃·魏伯陽·墨翟·禽滑釐輩易與耳.”

것들에 대한 무능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교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의 모든 면이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여래가 결국 마군을 제압시키니 불교를 가장 높이 평가한 듯도 하다. 그러나 항우가 원군을 청하러 갔을 때 관음보살이 남녀의性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불제자들은 “우리들은 차라리 시주하는 줄기와 구렁 즉 남근과 여근이 될지언정 맹세코 사문의 가죽 껍데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인간 세계에 왕생하여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¹⁷⁾라면서 태반이 여래의 곁을 떠나버린다.¹⁸⁾

<서유기>에서도 어느 한편이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천상천하 절대존재로 인정받는 上帝조차 옥을 당한다. 손오공이 “황제 노릇은 돌려가며 하는 법이니 명년에는 내 차례가 되리라”는 속어를 들먹이며 옥황상제더러 황위를 내놓으라고까지 하는데도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한다(7회). 손오공이 천궁에서 대소동을 벌일 때 상제와 천신들은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으며, 이후 取經 과정에서 만난 어려움으로 손오공이 천상에 오를 때마다 골치아파하며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전전긍긍하였다.

손오공은 불멸의 신선이 되려고 각종 수행을 하는 등 도교와 가까운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도교의 좋은 면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 <서유기>에서는 도교의 最上位神인 太上老君(즉 老子)까지 조롱당한다. 태상노군의 八卦爐를 손오공이 발로 차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손오공이 자신의 뒷덜미를 잡은 손을 땀다 뿌리치자 태상노군은 벌렁 나뉘고 마는(7회) 우스우면서도 약한 존재로 묘사된다. 삼장법사 일행이 지나는 곳곳마다 가짜 도사들의 횡포로 백성이 고통 받고 있었고, 심지어 손오공 등이 도교의 三清星像을 변소에 빠뜨려버리기(44회) 까지 하였으니 도교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현명한 국왕이 중심이 되어 백성을 아끼며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유교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水陸大會를 크게 벌여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백성간의 화합을 이루려고 몸소 노력하는 당태종의 모습

16) 이 점에 대해서는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고려대 출판부, 2002), 381~404 쪽 참조

17) <삼한습유> 권 2: “我等寧爲檀越莖溝 誓不做棄門面皮 我等皆願往生閻浮與衆檀越同歸 一聲阿彌陀佛, 去者過半.”

18) <삼한습유>에 나타나는 儒佛道와 魔의 형상에 관해서는 이승숙, 「삼한습유의 기술 방식 세 가지」 『고소설연구』, 15집(한국고소설학회, 2003), 152~160쪽에서 자세히 지적하였다

이 초반부에 묘사(12회) 되고 끝부분에 다시 取經을 기뻐하며 온 나라가 화합하는 모습을 그렸으나(100회) 그런 긍정적인 모습은 그 회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삼장 일행이 지나는 곳마다, 聖治를 이루어야 할 국왕과 신하들은 오히려 간신이나 요괴에게 솔깃하여 백성을 착취하기 일쑤였다. 그런 인물들에 대해 <서유>는 조롱을 멈추지 않는다. 朱紫國 왕은 왕후가 잡혀가는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걱정만 하고 앉아 있다. 이 나약한 임금의 병을 고쳐 준다면서 ‘말 오줌 과 부뚜막의 ‘그늘음’ 등을 섞어 만든 환약을 먹이기도 하고(69회), 멸법국에서는 일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불교 탓으로 돌리는 왕과 신하들의 머리를 모두 깎아 ‘까까중’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84회).

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결국 작품 전체의 내용이 불가의 경전을 얻기 위한 一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주인공 모두가 불제자의 일원이 되니 불교가 참 진리인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取經의 주인공인 삼장법사는 聖僧의 대표자로 나오지만 그 역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손오공이 眞僞를 제대로 판단하여 사악한 요괴를 없애려고 할 때마다 삼장은 진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늘 요괴의 편에 서므로써 문제를 일으켰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는 것 빼고는 한 것이 없으며 어려움에서 건져 내어주면 그 순간에는 손오공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늘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를 두둔하며 오히려 손오공을 내쫓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27회) 등 이런 내용은 수도 없이 반복된다. 또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고 마침내 여래가 있는 곳까지 와서 佛經을 얻게 되었을 때 부처의 수제자 아난과 가섭이 ‘너물을 요구 하고 또 너물이 없음을 쾌심히 여겨 글씨가 전혀 없는 ‘無字眞經’을 주는 모습을 그린 것(98회)도 불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유불도와 魔를 놓고 보면 전자는 긍정적으로 후자는 부정적으로 극명 二分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魔에 관해서도 유불도와 똑같이 인정하며 그 긍정·부정적인 면들을 모두 드러내었다.

<삼한습유> 권 2 첫머리에서는 魔王이 벌인 각종 지독한 싸움에 대해 요약제시 하기도 하였으나 上帝 역시 이를 제압하지 못하여 諸神들이 각기 스스로를 단속할 뿐¹⁹⁾이라 했다. 상제로 대표되는 측만이 절대선이며 그들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魔王은 인간 세상 유자들처럼 인간의 心性에 대해 아들에게 설명

하기도 한다.²⁰⁾ 또 魔王측과는 다르지만 흔히 사람들이 邪惡한 무리, 非正統의 무리라고 하는 찰마공주까지를 평등한 태도로 소개했다.

찰마공주는 “내가 구품의 연화대를 건너차 거꾸러뜨리고 삼청궁의 단약을 다리는 아궁이를 밟아 깨뜨리고, 홀로 수미산 꼭대기에 서서 세상의 유가 성현들을 내려다보아 함께 비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큰 도를 구하고자 하면서 나를 버린다면 그 누가 있겠는가. 저 유불선 삼교의 사람들은 식견이 높지 않고 조예가 매우 얕다. 사람마다 자기가 들은 바를 존중하고 자기가 아는 바를 행하기는 하지만 내 문호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지목하여 ‘마모라 한 것이다 마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도와는 다른 것이니 우뚝 서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이른다’²¹⁾라 하였다. 이야 말로 통념적 가치를 깨고 非主流에 대해서까지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하는 작가의 태도를 잘 나타낸 부분이다.

<서유기>에서 보자 여러 요정과 마귀들이 인정미 갖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부각되기도 하며,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것들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많은 요괴들은 저마다 여러 신선 또는 부처들과 한 식구이거나 한통속이다. 여기에서 神과 魔의 한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린다. 손오공, 저오능, 사오정이 모두 인간이기도 하면서 요물이나 요정과 같도록 묘사된 점을 생각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손오공 등은 생김새도 이상하여 보는 사람을 기절하게 만들기 일쑤이고, 하늘을 날며 요마와 맞닥뜨려 싸우기도 하며, 때론 변신도 하는 등 妖魔들이 하는 행동과 전혀 다름없는 것들을 해 낸다. 이들을 보고 혼비백산하는 사람들을 향해 삼장법사는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착하다 는 것을 자주 강조하였다.²²⁾ 이는 궁극적으로 대상을 神과 魔로 양분하고 있는 세상 인식

19) <삼한습유> 권 2: 先是, 魔王與天帝并時而生, 日與天帝尋兵, …天帝於是置而不問, 聽其行止, 不相關統, 以故魔王得以橫行上下, 縱容驕傲, 天神地祇, 各自斂束而已

20) <삼한습유> 권 2: 魔王曰 “兒童之見也, 小兒不學, 不知心性理氣之爲何物 吾將爲汝分別 言兩人事, 蓋莫不有是心, 亦莫不有是性, 心則氣也, 性則理也, 理乘氣發 故人之性相近也 心統性情 故人之性相同也 心有未發已發”

21) <삼한습유> 권 2: 刹魔公主曰 “我踢倒九品蓮花台 踏破三清鍊丹竈 獨立乎須彌山頂 下視人間儒聖儒賢而不與之計較, 欲求大道 舍我其誰? 彼三教之人 見識未高 造詣甚淺 人各尊其所聞 行其所知, 而不能及吾門, 故目之以魔道 魔道者不與人同道 特立不懼之謂也”

22) <서유기> 第八十八回 禪到玉華施法會 心猿木母授門人 중에서 那王子舉目見那等丑惡, 卻也心中害怕 三藏合掌道: “千歲放心, 頑徒雖是貌丑, 卻都心良.”

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 된다. 魔도 善이 될 수 있으며 眞이 될 수 있으며 美가 될 수 있다. 오직 그 ‘마음’에 달렸다고 말한 것이다

또 妖魔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유불도에 속한 인물이 妖魔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여산노모·남해보살·보현보살·문수보살이 함께 여자 요괴로 변하여 삼장일행의 禪心을 시험하기도 했었고(23회), 太上老君의 金爐와 銀露를 지키던 동자들이 세상에 내려와 요괴노릇하며 삼장법사 일행이 一念으로 取經에 힘쓰는가를 시험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32~35회). 여기에 魔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작가의 열린 사고가 드러난다. 요컨대 이들 두 작품은 거침없는 폭로로 통념적 가치를 전도시킨다는 면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3. 文壇과 思想의 새로운 潮流: 人情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서유기> 등 신마소설의 형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李贄(1527~1602)의 <童心說>이다. 李贄 즉 李卓吾는 擬古主義에 반대하며 개성 있는 문학 창작을 주창했던 중국의 사상가로, 異端說로 惑世誣民 했다는 비난과 탄압을 받아 결국 옥중에서 죽은 인물이다. 그의 <동심설>은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각종 문학과 사상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대저 동심이라는 것은 거짓을 끊고 참됨을 순수하게 한, 최초로 지녔던 생각의 본마음이다 만약 동심을 잃게 된다면 진심을 잃는 것이고, 진심을 잃으면 참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참되지 않으면 처음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²³⁾라 한 그의 주장은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이지의 이런 생각과 맥을 같이하여 맹목적인 복고주의를 비판하고 개성적인 문학창작을 주장한 公安派가 왕성히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대적·사상적 분위기와 맥을 같이하여 변화한 문단·사상계의 흐름은 100회본 <서유기>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童心은 假飾으로 변질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또는 태어날 때 하늘에서 타고난 그대로를 뜻한다고 할 때, 이는 곧 인간의 慾望과도 연결된다. 인간의 감정에 인위적 구속이나 규제를 두지 않고 감정의 자연스런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삼한습

23) 李贄, <童心說>: 夫童心者, 絕假純眞, 最初一念之本心也. 若失却童心, 便失却眞心; 失却眞心, 便失却眞人. 人而非眞, 全不復有初矣.

유>와 <서유기>는 공통적으로 女色 등 인간의 感情, 性情에 대해 인정한다. 이데올로기나 각종 사상으로 얽매이기 전에 사람이 본래 지닌 성정에 대해 인정한다. 비인간적인 차별이나 억압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성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자유를 주장한다. 이 점이 두 작품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문제의식이자 인식태도이며 또한 이들의 중대한 공통점이다. <서유기>와 <삼한습유>를 일별해 보면 이 점이 쉬이 드러난다.

<삼한습유>는 전체의 주제가 인간 性情을 눌러 烈女 되기를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봉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다. 다시 말해 성정에 대한 인정과 이해는 <삼한습유> 전체를 貫流하는 主旨이다

무릇 세상의 교감에서 남녀의 일만한 것이 없고, 짝어서는 더 심합니다. 느낀다는 것[感]은 정이 엮히는 것입니다. 『주역』에 말하기를 ‘남녀가 精을 맺음에 만물이 생겨난다’고 하였으니, 남녀가 정기를 엮을 때가 곧 만물이 생겨나는 순간임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남녀간의 그것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남녀라는 것은 사람의 큰 욕망입니다. 사람에게 남녀의 욕망이 없다면 인도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기운은 매우 진실하고 그 형태는 매우 오묘하지요 남녀의 만남이란 이 형태가 섞이고 기가 감응하는 것이니 人慾이 움직여야 天理가 흐르는 것입니다.24)

魔母의 天羅地網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天兵을 위해 항우가 여래에게 구원을 청하러 갔을 때, 관음보살이 한 말 중의 일부이다. 표면적으로는 항우의 구원요청을 거절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 남녀의 정이 자세히 묘사되었다. “인욕이 움직여야 천리가 흐르는 것”이라고 했으니 남녀 간의 정이 곧 天理임을 말한 것이요, 인간의 性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정한 것이다

함께 환생하자고 曹娥 등을 설득하려다 실패하고 돌아온 항량에게 후토부인이 부부간의 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다. 이 역시 인간의 성정, 남녀 간의 일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서 인정하고 있다.25) 이외 여러 곳에서도 이와

24) <삼한습유> 권 2: “夫物之交感者, 莫若男女, 而少者又甚焉. 感者, 情之構也. 易曰 ‘男女構精, 萬物化生.’ 言男子構精之際, 卽萬物化生之時也. …人之慾莫過於男女, 男女者人之大慾也, 人而無男女之慾, 人道不生焉. …其氣甚眞, 其形大妙, 男女之交會者, 以此形交而氣感, 人慾之行而天理之流也”

같은 서술을 볼 수 있다.

신마소설은 중국 唐代 이후의 시민계층의 등장과 그들의 자유로운 사유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통념이다.²⁶⁾ 특히 <서유기>에 나타난 손오공의 적극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는 이를 잘 나타내 준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울고 싶을 때 운다. 즐거울 때는 배꼽이 빠져라 웃고, 따질 것이 있을 때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꾀꾀이 항의한다. 손오공의 이러한 면은 天宮에서 소란을 피울 때부터 唐나라에 불경을 전할 때까지 시종일관 계속된다.

인간의 자유로운 욕구분출을 말한다면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일이 대표적이며 이 점에 있어서는 저오능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다. 高老莊에서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아내를 생각하는 저오능의 모습(18회)은 우스우면서도 친근하다. 이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정감으로, 기본적으로 <서유기>가 인간의 각종 욕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비록 손오공이나 삼장법사가 남녀간 정을 나누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남녀의 情感 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23회, 54회, 55회 등 곳곳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는 두 작품이 거침없는 폭로로 통념적 가치를 전도시킨다 했다. 전도시킨 그 자리에 제시한 것이 바로 인간 억압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 성정에 대한 긍정이다.

4. 기타 세부 서사의 면

작품의 지향 등 굵직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부 서사 면에서도 <삼한습유>와 <서유기>의 연관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세부 서사의 공통점은 두 작품의 영향 관계를 말할 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필요조건에는 해당하므로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5) <삼한습유>권 1 : 夫人笑曰: “甚矣! 汝之不悟也. … 夫身不親之者, 不知情狀, 彼則女而不婦者也, 安知男女之事, 夫婦之樂乎? 今以無情童女, 責其求匹, 正如求馬於唐肆, 操瑟於齊門, 資章甫而適諸越, 豈惟不行, 必以汝爲狂女也.” 夫女始大悟, 起而再拜曰: “神乎! 神乎! 婦與女之異情, 夫人何以知之?” 夫人又笑曰: “不盡人情, 不盡物性, 何能納污藏疾, 厚德配天, 而稱爲乾父坤母乎?”

26) 齊裕焜, 앞의 책, 188쪽. 최근 100회본 <서유기>를 완역해 낸 임홍빈 역시 작품 해설을 통해 이를 자세히 말한 바 있다. 『서유기』 10권(문학과지성사, 2003), 334~336쪽

향량의 재생과정(권 1, 73~75쪽)과 손오공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39회)이 비슷하다. 손오공이 사용하는 여의봉의 모양과 개수가 자유자재로 변하는 것과 후토부인이 金剛繡花針을 던지자 이것이 수천억 개의 쇠못이 되어 魔軍들에게 박히는 것(권 2, 180쪽)이 비슷하다. 손오공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붙는 것(46회)과 이천왕에게 목을 베인 마왕이 다시 목과 몸을 붙이는 것(권 2, 149쪽)이, 구원군을 요청하러 登天하는 항우(권 2, 186쪽)와 도움을 청할 仙聖을 찾으러 하늘에 오르는 손오공의 모습(57회 등 다수) 등이 매우 흡사하다.

사용된 삽화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서유기>에서의 水陸大會와 <삼한습유>에서의 혼인잔치가 비슷하고, 천태신고의 靑龍이 일으킨 난리와 이에 대한 해결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공중과 지상의 이중 싸움, 즉 神들과 인간들의 이중 전쟁이 벌어진다는 점도 비슷하다. 역사적 사실, 실존인물을 끌어다가 허구적 스토리, 허구 인물들과 엮어서 소설을 창작해 낸다는 점은 너무나 기본적인 면이라 더 말할 것이 없겠다.

등장인물로 보더라도 두 작품 모두에 나오는 이들이 많다. 火德聖君은 <삼한습유>권 2(144쪽)와 <서유기> 51회에 각기 등장하고, 孔雀大明王菩薩은 <삼한습유>권 2(202쪽)와 <서유기> 77회에 나온다. 후자의 경우, 대설산에서 여래가 공작의 뒤로 나왔다는 고사를 끌어와서 누구도 공작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때 여래가 직접 나타나서, 공작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제압하여 모시고 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두 작품 모두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狐精, 이천왕, 나타내자, 후토부인, 여래, 태상노군 등은 두 작품의 여러 장면에서 공통으로 등장한다.

둘에 공통으로 나오는 각 인물의 배치와 역할도 비슷하다. 예컨대 작품의 주인공인 삼장법사와 향량이 각각 부수적 역할만을 하는 점, 그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떤 인물이 나서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如來가 해결한다는 사실 등에서도 이 둘은 매우 유사하다. 이는 단순히 등장인물 한 둘이 겹치는 것의 의미보다 한층 주의해서 평가해야 할 공통점이다. 우리나라 고소설 중에도 유불도 중에 불교의 인물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작품이 많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소설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삼한습유>와 <서유기>의 변별성

이상 살펴본 대로 <삼한습유>와 <서유기>는 공통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이 둘 간에 변별적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쉽게는, <서유기>는 100회로 이루어진 回章體 소설인데, <삼한습유>는 천군과 마병간의 전쟁 부분을 권 2로 독립시켜 권 1과 권 3을 잇도록 한 3권 1책의 단일작품인 점 등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 <삼한습유> 권 2의 경우 <서유기>와의 연관이 짙게 나타난다. 다만 권 1과 3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 2, 3권을 이어 만든 전 작품을 보면 <삼한습유>와 <서유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한·중 간의 문학사적 전개가 다른 까닭이요 작가나 독자의 의식 등도 다른 까닭이다. 이 둘 간의 변별적 거리를 상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비 전승물과 개인 창작물

<서유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입과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적층 문학이다. 반면 <삼한습유>는 한 개인이 자신의 시각에 따라 창작해 낸 작품이다. 이 둘 간의 변별점은 구비전승물과 개인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문체에 대한 대응 태도와 인생관에 관해서이다. <서유기>에서는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민중들의 낙천주의를 주로 나타냈다면, <삼한습유>는 신랄한 비판과 비꼼, 寓言의 방식으로 특정 작가의 사상을 고도로 숨겨놓았다. 두 작품 모두 당시 사회에 대한 매우 통렬한 비판을 담았는데,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 둘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서유기>에서는 당시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하면서도 시종일관 낙천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요괴에게 붙잡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 당했을 때, 손오공은 깊은 걱정으로 주저앉아 통곡한다. 그러다 피가 생각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재미있어 하고 통쾌해 한다(41회, 65회 등 다수). 힘센 요괴와 만나 승산이 없자 뽕소니치는 상황 속에서도 저능은 숲에 머리를 처박고 속편히 몇 시간 동안 낮잠을 잔다(29회).

그렇다고 모든 면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할 때는 우직하게 한참도 쉬지 않고 일한다. 예컨대 요괴의 영향으로 오랜 동안 행인의 왕래가 없어서 길이 막혀버린 荊棘嶺을 정리하기 위해 저능은 쇠스랑을 들고 백리도 넘는 길을 쉬지 않고 일했다(64회). <서유기>는 시종일관 이런 낙천주의적 면모를 보인다. 주인공들은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며, 갈수록 더 지독한 어려움을 만난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눈물을 뿌리며 어찌할까 걱정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일어난다. 民草의 약하면서도 강인하고 질긴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삼한습유>가 드러내는 언어 특성, 인식 특성은 전혀 다르다. 진지하면서도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펼치다가 그 대상에 대한 이때까지의 실체를 통렬히 파괴해 버린다. 그래서 때로 읽는 이로 하여금 떨리고 거북한 느낌이 들게 한다. 예컨대 사마천은 삼시충이 향량을 모함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한다. 주위에서는 감탄하면서, 그가 비록 치욕스런 宮刑을 당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發憤하여 길이 남을 역작인 『史記』를 이룰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 했다. 그러나 <삼한습유>의 표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는 이것과 저것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시다만 『사기』를 마친 후에 저 역시 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집에 들어가 왼쪽을 돌아보면 아내가 수건을 들고 시중드는 건 옛날과 같습니다만, 아내가 있으나 아내가 없는 것과 같고, 지아비가 있으나 지아비가 없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부부가 구별이 있어 서로 손님과 같이 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홀아비와 과부로 지내고 다시는 부부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만 있을 뿐 부부생활의 실체는 없는 채 이제까지 손님으로 머뭙니다. 저는 남몰래 이를 슬퍼합니다.” 상제가 크게 웃었으며 侍臣들도 모두 배꼽을 잡았다.²⁷⁾

사마천의 입으로 부부의 이름만 있을 뿐 실체는 없는 ‘손님’으로 평생을 보낸 것이 슬프다고 함으로써 상제를 비롯한 侍臣들까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하였다. 치욕을 참고 『사기』를 완성한 후에야 결국 자결을 택하였던 사마천의 삶을

27) <삼한습유> 권 1: “以此易彼 臣不願矣 然書成之後 臣亦無恨 惟是入門左顧 墓市如舊 有妻而無妻, 有夫而無夫, 夫婦有別 相對如賓, 沒身鰥寡, 不可復續 名存實無 至今客宿 臣竊悲之” 帝大笑 侍臣亦皆捧腹

생각했을 때 그를 이렇게까지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심하다 싶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분을 품고 세상에 문혀鬱鬱한 삶을 보냈다는 점에서 작가 김소행과 사마천은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 사마천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작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自嘲로 읽히기도 한다. 앞서 <서유기>에서 보이는 유쾌함이나 낙천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듯 자조적이면서도 비꼬는 듯 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것은 <삼한습유> 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주 발견된다. 구비 전승물과 개인 창작물이라는 차이는 자연스레 표현의 차이로 이어졌고 그 차이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다르게 형성했다.

<서유기>는 민중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이루어진 작품인 만큼 그 안에 민중의 언어나 비유 등이 많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서유기> 곳곳에 속어가 나오며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 등 유희적인 습성이 짙게 나타난다.

예컨대 3회에는 한 장면 안에 “나그네는 한 주인을 만나면 다른 주인을 찾지 않는다,” “세 집을 돌아다니는 것은 한 집에 눌러 앉는 것만 못하다,” “외상 석냥 보다는 현찰 두 냥이 낫다” 등 속어 세 종류가 동시에 나타난다²⁸⁾ 작품 전체로 따지면 몇 백 개에 이를 정도이다. 동음이의어도 마찬가지이다. 손오공이 도술을 익히기 위해 須菩提를 찾아가자 수보리는 그에게 묻는다.

“...네 성은 무엇이냐?”

미후왕 손오공이 또 대답했다.

“나는 성이 없습니다. 남들이 만약 나를 욕해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고 만약 나를 때려도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다만 몇 번이고 절하며 끝낼 뿐 일생동안 성미부리는 일은 없습니다.”²⁹⁾

성씨를 말하는 ‘姓’과 성미나 성질을 나타내는 ‘性’은 중국어 姓[xing] 이 같은 동음이의어이다. 이를 이용하여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동음이의어를 통한 유

28) <서유기> 第三回 四海千山皆拱伏 九幽十類盡除名 중에서 悟空道 “一客不犯二主, 若沒有我也定不出此門!” 龍王道: “煩上仙再轉一海, 或者有之” 悟空又道 “走三家不如坐一家, 千萬告求一副” 龍王道·悟空道: “我老孫不去, 不去 俗語謂賒三不敵見二, 只望你隨高就低的送一副便了”

29) <서유기> 第一回 靈根育孕源流出 心性修持大道生 중에서 “你姓什么?” 猴王又道 “我無性 人若罵我, 我也不惱, 若打我, 我也不嗔, 只是陪個禮兒就罷了, 一生無性.”

희적인 표현은 <서유기> 전반에 퍼져 유쾌하면서도 장난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반면 <삼한습유>에는 죽은 향량이 降臨하여 전남편을 정죄할 때 쓴 “도로 아미타불[眞是還爲阿彌陀佛者也]”이라는 말(권 1, 41쪽)이나, 불제자들이 여래를 떠나면서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지 말라 寧爲鷄口 無爲牛後”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권 2, 196쪽) 외에 민간에서 쓰이는 俗語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경전의 어느 구절을 전혀 다른 뜻으로 차용해서 쓰는 경우만 자주 나타난다. <서유기>가 口語로 장난했다면 <삼한습유>는 서적이거나 기록을 이용하여 장난을 쳤다 때문에 후자의 경우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

특히 <삼한습유>에서 『詩經』을 인용하여 글을 쓰는 곳에서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난다. 예컨대 관음보살이 마모의 天羅地網을 설명하면서 『시경』, 「邶風·綠衣」중의 “綠兮衣兮, 綠衣黃裳, 心之憂矣, 曷維其亡”이라는 구절을 끌어와서 “부인이 대장부를 제어하여 이끄는 수단이 치마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있다(권 2, 193쪽). 이 시는 위나라 장공이 첩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정비 보다 높였음을 슬퍼한 시이다. 녹색은 중간색이요 황색은 중앙색, 즉 正色인데 정색인 황색으로 아래옷을 입고 중간색인 녹색으로 윗옷을 입었으니 위아래가 바뀌어 참람한 상황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시를 이해하면 ‘치마[裳]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衣와 裳이 각각 윗옷과 아래옷을 나타낸다는 상대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데 김소행은 강조의 초점을 ‘치마’에 두었다. 그래서 이것을 남녀의 교합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³⁰⁾

2. 인물형상화와 사회적 기반의 변별성

형상화한 인물들의 모습에서도 이 두 작품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서유기>는 오랜 시간을 거쳐 민중에 의해 이루어진 합작품이므로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민중의 의식을 읽어야 한다. 그 안에 형상화된 주인공들은 민중의 정서에 따라 형상화된 민중의 이상형인 것이다.

30) 이에 관해서는 서신혜, 앞의 책(2004a), 100~116쪽에서 예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오능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삼장법사의 안위가 의심스러울 때마다 서슴없이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열심히 땅 파서 일하고 밤이면 마누라를 끼고 잡자리에 드는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것이야말로 낙원이라고 했다. 저오능의 우직함과 그의 낙천적 성향은 민중들의 소박하고도 건강한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독자는 이를 통해 그런 성향을 읽고 재미를 느끼며 함께 한다.

손오공의 모습은 어떤가? 그는 어떤 흑독한 시련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한 순간 주저앉아 통곡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웃으며 七顛八起 한다. 또한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는다. 그 대상이 上天下地의 大主宰인 上帝일지라도 할 말은 다 하며 따진다(7회). 불쌍한 이들을 보면 그들이 승려(44회, 84회)이건, 어린아이(78회)이건, 힘없고 가난한 백성(91회)이건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준다. 또 사악한 요괴를 분별하여 이들에 대해 징계할 때는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짓밟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야말로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다. 민중이 원하는 영웅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비록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거나 온갖 모습으로 변신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지닌 진취성과 그가 누리는 자유와 그가 가진 평등의식을 민중들은 원한다. 이런 습성은 당대 시민의식의 성장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삼한습유>는 경우가 다르다. 곳곳에서 작가의 능력과 지식을 드러내고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정치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드러냄으로써 知人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울분을 표현했다. 때문에 <삼한습유>에는 설총 등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또는 君子 등의 불확정적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의견을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많다. 예컨대 향량의 결정적 도움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스토리를 구성한 후 이에 대해 君子의 입을 빌어 “삼국의 역량이 비슷하지만 고구려는 연개소문, 백제는 계백이라는 한 사람 인재를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하였고 신라는 김유신을 잘 썼기 때문에 삼국통일을 이루었다”(권 3, 258쪽)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人才論을 설명하고 자신이 또한 그런 인재임을 드러내었다.³¹⁾

결국 소설을 통해 작가가 표현해 내고 있는 인물은 자신이며 수많은 인물들의

31) 이에 관해서는 서신혜, 「삼한습유 연구: 삽화의 배치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8), 63~68쪽을 참조 바람.

활동과 평가를 통해 귀착되는 결론도 역시 자신이다. 작가는 ‘알이죽’의 문제, 능력 발휘의 기회에 관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생각과 율분에 관한 것이다. 즉 <삼한습유>는 한 개인의 창작물이라, 한 작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과 관련해서 이 두 작품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반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차이는 곧 스토리의 지향을 결정하여 자연스럽게 두 작품이 변별되도록 만들었다.

두 작품이 완성될 때의 시대상, 사회상을 생각해 보자. 100회본 <서유기>가 완성되어 유통되던 때는 유불도 중에서도 특히 도교의 성행이 극치를 이룰 때이다. 사방에 道觀이 생긴 것은 물론이요 도사를 빙자한 수많은 이들이 왕의 옆에 붙어서 온갖 사기를 감행할 때이다. 때문에 <서유기>에는 유불도가 모두 나오지만 특히 도교의 도사들이 횡포를 부리는 내용이 많고, 불교의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졌으며 불교의 인물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는 이 소설의 지향이 은연 중 도교의 횡포에 대한 고발 쪽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삼한습유>가 창작된 조선 후기는 지배층인 양반과 지배이데올로기인 儒敎의 무능이 폭로된 시기였다. 상품 화폐 경제의 등장으로 士類는 아니지만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생성되었고 이들의 힘을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청나라 서적과 문물의 전래로 사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진보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조류가 당시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몇몇 선구적인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했다. 또 지배계층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이 노정될수록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과 암묵적 규제는 더욱 硬化되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부 수절 문제만 하더라도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일부 상층 士類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으나 후기에 들어서는 일반 평민층까지 확산되었으며, 처음에는 평생 재가하지 않는 것에 그쳤다면 후기로 갈수록 남편 등을 따라 자결까지 해야만 열녀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한 이들을 칭송한 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역시 지배이데올로기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다. 때문에 <삼한습유>는 이들 지배계층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횡포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쪽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IV. <삼한습유> 다시보기: 마무리를 겸하여

<삼한습유>는 총 3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의 논의에서 <서유가>와의 관련을 말할 때 거의 권 2에 치중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작가 김소행은 분량으로 권 구분을 하지 않았다. 권 1, 2, 3의 분량은 각기 126, 76, 63 편이니 그 차이가 심하다. 이야기 소재별로 구분한 것도 아니다.

권 1에는 향랑고사 외에 향랑의 환생재가를 두고 벌이는 초월계의 회의, 귀신이 된 향랑이 효렴과 조아, 정의녀 등을 찾아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 향랑이 환생하여 새 몸을 이루는 이야기, 천상과 세상의 온갖 여인들의 爭位談 등 잡다한 이야기들이 함께 묶여 있다. 권 3에도 중국 역대 인물들이 원수를 갚는 부분, 백제와 신라의 전쟁, 조룡대와 백마강 이야기, 고구려 후기 권력 투쟁담, 낙화암 이야기, 향랑과 효렴의 죽음 등 온갖 이야기가 함께 있다. 권 2는 마왕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여래의 도움으로 마왕이 완전히 힘을 잃는 것에서 끝난다. 요컨대 김소행은 魔王의 등장과 사라짐을 기준으로 권 구분을 하였다. 신마소설 <서유가>의 영향을 논하며 특별히 권 2를 깊게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김소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김소행은 왜 권 1과 권 3을 神魔談으로 연결하였을까?

권 1은 향랑고사로 시작된다. 향랑이라는 한 양민여성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혼인을 하였다가 남편과 시어미의 갖은 구박을 받아 친정으로 쫓겨 온다. 친정 식구들로부터 再嫁의 압력을 계속 받던 향랑은 ‘재가는 예에 어긋난다고 하며 결국 오대지에 몸을 던져 죽는다. 재가하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는 당시 조선 유교의 硬化된 이념이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간 여타의 수많은 傳이나 漢詩들이 여기까지의 그녀의 행적을 말하고 칭송하였다.³²⁾

그러나 <삼한습유>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한다. 조선 후기 수십 명의 문인들이 여러 글로 칭송한 대표열녀 향랑을 끌어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다. 지부와 천상을 오가며 환생재가 시켜 달라고 조르고, 본래 맘에 두고 있던 남자인 효렴을 찾아가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역대 열녀로 알려진 조아와 정의녀를 찾아

32) 향랑의 일을 제재로 쓴 여러 문인들의 글은 서신혜, 『열녀 향랑을 말하다』(보고사, 2004b)에 모아 놓았다.

가 함께 환생하자고 권유하기도 한다. 그 어느 것도 조선 사회 여인의 열녀의 행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 지부나 천상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있었고, 조아와 정의녀 모두에게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였다. 기본적으로 소설의 스토리는 향량의 환생재가를 이루어가는 쪽으로 진행되며 당대 유교 이념, 열녀 이데올로기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았다.

권 3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기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흔히 아는 대로 신라의 김유신과 여러 화랑들, 백제의 계백과 그의 군사들,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그 아들들의 활동과 죽음을 통해 통일신라가 서는 것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념도 없이 규방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것이 유교 정치 이념이 만들어낸 여자의 삶이었다. 그러나 향량은 규방에 갇아서도 백제와 고구려의 정치 흐름을 읽고 있으며 그 흐름에 따라 남편 효렴을 권유하여 당나라에 원병을 청하게 한다. 또 백마강을 渡江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당나라 군사 모두가 용의 고기를 먹고 중독되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그리하여 신라는 물론 당나라에서까지 칭송과 존경을 받는다. 남자만 활동하며 공을 세우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여자도 활동하며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칭송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여자라서 집안에 갇혀 죽음만을 강요당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김소행은 깨야할 무엇을 권 1과 3에 두고 그것을 神魔談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권 1에서는 찬반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권 3에서는 전혀 異議 없이 통일의 공이 향량에게 돌아간다. 권 2가 어떤 큰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여기에서 앞부분에 논의한 <서유기>와 <삼한습유>의 비교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삼한습유>는 三敎 이외에 魔까지 포함하여 소설화하고 이들에 대해 평등하게 대하였다. 이런 가치평등의 태도를 통해 사교의 유연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三敎와 魔 등 모든 것들에 대한 통념을 부수고 그들의 허위와 무능을 거침없이 폭로하였다. 그 폭로 앞에서 온갖 사상은 빛을 잃었으며 그 사상을 바탕으로 이룬 온갖 이데올로기조차 설 자리를 잃었다. 이 폭로는 주로 권 2에서 이루어졌다. 천상과 지상에서 펼쳐지는 강력한 적과의 전쟁은 온갖 사상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끌어 모으기에 충분했다. 유불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모인 장면에서 김소행은 그들의 허위와 무능을 통렬하게 제시하였다. 魔가 등장하는

환상적인 장면과 사건 속에서 삼고는 철저히 無化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실상이 가장 사실적으로 드러났다. 카프카의 <변산>이 그렇듯 환상적인 장면을 통해 당시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 절대악으로 치부되던 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면까지 제시하였다.

이는 그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이데올로기에 대해 재고하게 만들기도 한다. 작품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서유기>의 경우 특히 도교가, <삼한습유>의 경우 특히 유교가 그러했다. <삼한습유>에 국한했을 때 통렬한 폭로로 아무 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 남은 것은 人情이었다. 나이나 신분을 불문한 채, 여인에게 죽음을 강요한 열녀 이데올로기라는 억압보다 중요한 것이 人情이라 주장하였다. 그래서 인정의 흐름대로 원하는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게 하였다. 또 능력은 있어도 집안에 갇힌 채 이름 없이 죽기를 강요당하였던 여인들 역시 능력을 발휘하며 공을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작가의 신분이나 처지와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은 여인뿐만 아니라 중인 이하 각종 신분적 억압을 받아 不遇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신분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타적 지배계층을 형성한 사대부에 대한, 그들이 강화하기에 힘쓰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 대한 폭로요 저항이었다. <서유기>의 통렬하면서도 건강한 비판의식 등은 <삼한습유>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드러내는 데 일정한 공을 한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권 2는 거침없는 폭로 등을 통해 통념적 가치의 전도를 드러내는 장치였다. 기존 이데올로기의 파괴를 위한 설정이었다. 이를 단순히 혼사장애의 일종으로 치부한다면 그 안에 담긴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흐름을 간과하는 것이다.

<삼한습유> 이전에는 三教 이외에 魔까지 포함한 작품이 없었다. 정확하게 말해서 魔까지 포함하여 구성된 장편소설이 없었으며, 魔에 대해서까지 평등하게 대한 소설이 없었다. <삼한습유>는 <서유기>로부터 구성과 인식 등의 면에서 상당한 시사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러 인물 배치와 사용한 전술의 동일함에서부터 시공간이나 제재 설정 까지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권 1, 3의 한국적 제재와 당시 조선의 상황을 향한 작가의 시각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권 2에 삽입되었다. <서유기>가 당 승려의 取經사실을 근간으로 온갖 神魔 설화를 연결시켰다면, <삼한습유>는 향량이라는 한 여인의 죽음을 근간으로

그의 혼인과 활동을 둘러싸고 벌이는 온갖 神·魔·人의 일을 연결시켰다. 신마소설의 여러 특성과 그 살아있는 가치평등 의식 등은 끌어오되 권 1과 3에 우리나라의 일을 배치하여 우리의 문체를 제시하고 드러내는 데 신마소설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중국문학과 우리문학의 생성과 변형, 발전에 관해서는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선 중기 무렵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 4대奇書의 유통과 독서경험이 우리 소설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여기에서는 조선 후기 장편한문소설인 <삼한습유>와 신마소설의 대표작이며 중국의 4대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를 나란히 두고 그 친연성과 변별성을 논의해 보았다. 그 논의를 통해 <삼한습유>의 이야기 구성을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 그 결과 등장인물이나 사소한 기법에서부터 인식태도까지 모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김소행은 다른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서유기> 역시 자신의 분위기에 맞게 받아들이고 요리하여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창조성을 발휘하였다. 적층성을 창조성으로 바꾸었으며 여기에 이 둘 사이의 변별적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한습유> 권 2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神魔談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으며 작품을 일정한 지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삼한습유>는 조선판 판타지 소설이며, 한국에서 신마소설의 가능성을 입증한 소설이다.

우리 고소설에서 <서유기>나 <봉신연의> 등 신마소설의 영향이 감지되는 작품은 매우 많다. 자잘한 기법에서부터 특정한 인물들이나 스토리 라인, 이야기 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여러 작품에서 보인다. 일찍이 선학들이 지적한 <이춘풍전>이나 <속향전>, <홍길동전> 등 뿐만 아니라 <삼한습유>, <여와전>³³⁾ <정생전> 등 다양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 영향관계의 기준을 과다하게 높여 잡지 않는다면 기법면, 인물면 등 여러 기준으로 수많은 작품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소설에 ‘신마소설’이라는 유형, 또는 이와 나란히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 기법 등을 설정·논의·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시도를 통해 한·중 문학 간의 관계에

33) 최근 전성운은 <여와전>을 <봉신연의>와 대비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 전성운 「여와전 과 <봉신연의> 대비의 소설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4집(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1~27쪽.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함께 저야 할 짐이다.

참고문헌

- 魯迅(著)/정범진(역), 『중국소설사략』. 서울: 학연사, 1987.
- 서신혜, 「삼한습유 연구-삽화의 배치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8.
-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한습유』. 서울: 박이정, 2004a.
- 서신혜, 『열녀 향량을 말하다』. 서울: 박이정, 2004b.
- 윤태순, 「서유기 神魔考」. 『중국학연구』 8·9 합집, 숙명여대 중국연구소, 1994.
-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연구』. 서울: 삼영사, 1983.
- 이승수, 「삼한습유의 기술방식 세 가지」. 『고소설연구』 15 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이승수·서신혜(역주), 『삼한습유』. 서울: 박이정, 2003.
- 임홍빈(역), 『서유기』 전10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전문학연구』 20 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서울: 고려대출판부, 2002.
- 전성운, 「<여와전>과 <봉신연의> 대비의 소설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4 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정규복,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서울: 국학자료원, 2001.
- 齊裕焜, 『明代小說史』.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7, 188 쪽
-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최한용, 「서유기의 神佛과 妖魔關係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6.
- 吳承恩, <西遊記>. 北京: 中華書局, 1993.

● 투고일 : 2005. 1. 24.

● 심사완료일 : 2005. 5. 27.

● 주제어(keyword) : 서유기(Seoyugi), 삼한습유(Samhanseubyu),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神魔小說(novel of demon and god), 魔(demon), 유교(Confucianism), 불교(Buddhism), 도교(Taoism)